

한국외대 성결대 졸업  
서울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신학석사)  
미국 Alliance 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석사)  
미국 Asbury 신학대학원 졸업(신교학박사)  
북한선교.다문화선교.해외선교위원장 역임  
농어촌부 선교부 여전도부장 역임  
현 남전도부장  
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운영이사  
현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 이사

2022년 11월 28일 예성 101회기 총회 교역자 평생교육원 동계대학 강좌

## 성결의 복음의 세계화 (Globalization of the Gospel of Holiness)

노윤식 박사  
(주님앞에제일교회, 전 성결대 신학대학원장)

땅 끝 곧 극동(Far East) 아주 먼 곳으로 세계인에게 인식된 이 땅에 1884년 알렌과 맥클레이(Robert S. Maclay) 1885년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셀러(Henry G. Appenzeller)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38년이 흘렀다. 알렌, 맥클레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 외국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래된 공식적인 선교 기록 외에도,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에 서상륜 서경조 두 형제, 곧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세워진 소래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는 복음 전래의 시기가 139년 전으로 더 앞당겨진다.

물론, 서상륜 서경조 두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 로스(J. Ross)나 맥킨타이어(J. MacIntyre)로 거슬러 올라가면 복음 전래의 역사는 그 이전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확신했던 에딘버러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가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의 조력으로 1875년부터 1878년까지 누가복음 초역을 완성하였는데, 성경 번역에 참가했던 4인은 1879년 맥킨타이어 선교사에 의해 세례를 받아 최초 교인이 되었으며, 1882년 3월 24일 서상륜의 동역으로 한글 성경 누가복음이 출간되었다. 그 후 서상륜과 성경 인쇄식자공인 김청송이 로스 선교사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 이들이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설교와 예배를 한국어로 드렸으니, 복음의 전래는 엄밀하게 1879년 한국인 최초 수세일을 기준으로 보면 143년 전이라 할 수 있다.

성결교회 초기 복음 전래의 역사를 보면, YMCA 청년 운동에 열심이었던 김상준, 장로교 청년 지도자였던 정빈과 감리교 조사였던 이명직, 이명현, 그리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청년 이장하 등이 '존 웨슬리가 주창한 성서적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결성된' 만국[사도]성결교회의 순복음(Full Gospel)을 배우고, 성결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1905년 만국[사도]성결[연합]교회(1919년 만국성결교회 International Holiness Church로 명명) 해외선교위원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 선교를 위해 극동 총리로

찰스 카우만을 임명하였다. 카우만에 의해 설립된 동경성서학원에 1905년 입학하여 1907년 졸업한 김상준, 정빈은 그 해 동양선교회 총리 카우만과 부총리 길보튼과 함께 경성에 와서 종로 염곡에 한국성결교회 최초의 교회인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Gospel Mission)을 설립하였다. 복음전도관이라는 명칭은 미국 만국성결교회의 교회 명칭으로서 카우만의 스승인 퍼거슨 목사의 교회 명칭에서 따 온 것이었다.

이 땅에 성결교회가 설립된 지 115년, 불과 사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 땅의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 기독교는 사회에서 상당 부분 존경받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로부터는 기독교의 실질적 헌신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현실기반 이상의 비난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다원주의와 세속화로 인한 종교적 상황뿐만 아니라 자본주의하에서 저성장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이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한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미 저성장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외적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가 진정 믿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며, 또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만 하는지 말이다.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진정으로 잘해 왔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앞으로 잘해 나갈 것인지를 말이다.

이 점에서 한국 성결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의 정립을 위한 노력의 초석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지향했었는지 그 처음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혼돈하고 길이 막혀 답답할 때, 멈춰 숨을 고르며,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새 힘을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처음을 살펴보고, 그 뜻을 두루 헤아려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성결교회를 장로교, 감리교 다음의 대표 교단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웅색한 멈춤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초창기 성결교회의 순수한 열정으로 세계를 품어 어두운 구한말 조선을 향하여 이 땅에 그 뿌리를 내리기까지,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적 열정과 기개를 살피고, 우리 예성을 통하여 성결 복음의 세계화를 도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성결의 후세들에게 순복음 곧 사중복음으로 대표되는 신앙적 업적을 전수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체득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정확한 역사적 진실에 근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아전인수격인 사적 접근은 배제되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잘 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정확하게 자기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알고 노력하는 자들의 자아 인식과 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자들의 자아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우리 신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교역자들도 점차 교단성이 사라져 감을 느낀다. 자부심은 정확한 자기인식에 기초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무엇인가?

### **첫째, 한국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부흥 ‘다시 살리는’(Revival) 운동이다.**

성결교회는 부흥 ‘다시 살리는’ 운동을 통하여 설립된 교단이고, 부흥을 추구하며 성장해 왔다. 성결교회 창시자 미국의 마틴 뎀 목사는 19세기 후반 미국 중동부지역에 불은 강력한 성령의 부흥운동을 ‘다시 살리는 사람들’(the Revivalist, 부흥사)라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며, 전 미주에 알렸다. 그의 문서 선교 활동은 전 미주에 호응을 얻어 큰 기관이 되었고, 신

시내티에 성결교회 컴파운드(신학교, 교회, 교단, 구호소, 출판사) 설립에 재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마틴 냅의 만국성결교회 선교사로 파송된 카우만과 길보른은 이장하를 통하여 만성의 마틴 냅의 복음가, 부표 신약성서, 성결 부흥 책자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이후 한국성결교회는 신학교(성결대, 나사렛대, 서울신대), 교회 및 교단(기성 약 3000교회, 예성 약 1200교회, 나성 약 300교회), 구호소(각교단 사회복지국 및 긴급재난대책위원회), 출판사(각 교단출판사), 각 교단 신문 및 정기간행물(성결, 활천, 한국성결신문, 성결신문, 나사렛신문 등)을 통하여 성결부흥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 하나님의 성서학원에서 International Holiness Convention 성결 수양대회를 개최하여 성결교회 성도들과 교역자 그리고 신학생들이 모여 부흥회를 진행하여 신앙회복과 성령운동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성결교회 전통은 한국성결교회에 그대로 전수되어 동계대학을 비롯한 청소년부, 학생부, 청년부, 남전도부, 여전도부, 전국장로회, 예성부흥사회를 통하여 연차대회와 부흥운동이 지속되어 왔다.

1910년 한국성결교회 첫 성결 수양대회(Holiness Convention)에 미국 애즈베리신학교 창립자인 헨리 모리슨이 초청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J. B. Thornton 등 만성의 지도자들이 강사로 초청되었으며, 1914년 한국성결교회 최초의 목사안수식에 G. D. Watson 등 미국 만성의 지도자들이 안수 위원으로 초청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고 향후 코로나 이후 부흥 운동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18-20세기 부흥 운동의 주역은 웨슬리의 성결 운동을 따르는 웨슬리언들이었는데, 21세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유례없는 부흥회 금지, 예배시 찬양 자제, 성가대 운영 및 연습 금지, 구역 혹은 제자훈련 소모임 금지, 애찬 등 식사 금지 등이 한국교회를 강타하였다. 이것은 18세기 이후 사용되었던 웨슬리적인 신앙 부흥방법론의 금지이다. 이제는 웨슬리적 신앙 부흥 방법론을 초월하여 새로운 시대적 신앙부흥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오프라인 부흥성회, VR & XR 가상 증강 영상 부흥성회 체험, 부흥운동의 신앙 콘텐츠 제작과 배포 등이다.

그리고 오순절 부흥 운동 교단과 세계적인 협력(global partnership)을 진행하여야 한다. 성결교회는 본래 성령 운동에서 비롯된 교회이다. 미국 성결교회 역사신학자 도널드 데이튼의 <오순절 성결 운동의 근원>(조종남박사 역)에 보면, 성결교회의 사증복음은 미국의 19세기 중 후반 성령운동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재 복음주의 교회 중에서 급속하게 부흥하고 있는 오순절 성결교회에 대한 새로운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국성결교회의 창립자 마틴 냅의 하나님의 성서학원 제자이자 오순절 운동의 창시자인 William Seymour 2세 목사는 흑인으로서는 아주사 거리에서 Apostolic Faith Mission을 세우고 25년간 방언, 신유, 재림, 선교 등을 강조하는 성결 오순절 운동을 주도하였다. 시무어 목사를 강사로 초대한 M. L. 시무어 여사는 마틴 냅의 영향으로 인종 학력 나이 대륙을 초월하여 1902년 비즈 패시픽 성경대학(현 Point Loma Nazarene Uni.)과 오순절 나사렛 교회를 세우고 성결 오순절 지도자들을 양육하였다. 대표적인 교단이 460만 성도를 가진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이다. 칭의, 성결로서 성화, 완전한 사랑, 성령세례, 신유, 재림을 세계로 전하기 위하여 “Worldwide Pantecostal Holiness Union” 결성하였다.

**둘째, 한국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부흥운동의 핵심적 신학인 사증복음에 있다.**

19중 후반-20초 영미 서구 부흥운동은 각 지역마다 ‘장막집회’ 부흥회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부흥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불길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등 사중복음의 메시지이고, 부흥강사들의 말씀도 “예수 믿어 중생하고, 성령세례 받아, 강건함으로 주의 재림 준비하며 세계선교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감리교 목사였으나 성령운동한다고 교단에서 쫓겨난 마틴 뱀은 성결교회를 웨이커 교회 목사인 셋 리스와 함께 창설하고, 교단 헌법과 신학에 사중복음을 넣고 하나님의 성서학원을 설립하고 사중복음을 가르쳤다. 한국성결교회도 이와 같이 사중복음을 교단 헌장에 성결교회의 사명과 특색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교단 신학으로 유지 확장 발전시키고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성 헌장 제1장 총강 제7조 사명 3항에 보면, “사중복음 곧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증거하되 특히 성결을 강조”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제8조 특색에 보면 “성경을 진리의 기본으로 하여 영적으로 풀이하는 일과 성경의 근간인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하고 은혜의 체험과 심령부흥에 치중하는 일”이라고 한국성결교회의 특색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성결교회는 미국 만국성결교회의 셋 리스 총회장을 비롯하여 존 웨슬리와 마틴 뱀 등 “성결의 복음을 온 세계로”(Holiness onto the World) 전하였던 지도자들의 영향력 있는 성결 신학에 도전을 받았다. 특히 만성 제1회 총회장 셋 리스 목사의 “지경을 너머(the Regions Beyond)”라는 선교 도전은 선교 전략적으로 월간지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영혼을 부정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선교사로 만들 것이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의 삶과 개인적인 취향을 내려놓고, 지경을 너머(the regions beyond) 나아가자. 그 분이 먼저 당신 앞에 갈 것이다. 그 분이 당신 옆에 서 계실 것이다. 그 분이 공급하실 것이다. ... 당신은 가서 왕관을 영원히 쓸 것이다.

만국성결교회의 성결 신학은 존 웨슬리와 마틴 뱀의 성령 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에, 카우만과 길보른은 웨슬리의 글과 마틴 뱀의 글을 선교 월간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온전한 구원(Full Salvation)에 대하여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 하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의 행위로(by our works) 노력해 보았고, 점진적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결코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즉, 한 순간(in a moment)에 오며, 그것도 우리가 칭의를 받았던 그 방식 그대로 단순한 믿음으로(by simple faith) 되어지는 것이다.

성결은 신자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고백 되는 역사이다(빌 3:15). 회심과 같이 그것은 하나의 순간적인 역사이다(행 2:2, 4). 그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은혜의 역사이다. 그것은 회심자에게 권고되며,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이다.

**셋째, 한국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성결 기도 부흥 운동을 통한 세계선교 네트워크 형**

성이다.

성결교회를 창립한 마틴 냅은 신시내티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성결 기도 부흥운동을 통하여 세계선교의 네트워크를 시도하였다. 시카고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School) 출신 카우만 부부를 GBS에서 교육하여 졸업시킨 마틴 냅은 카우만 부부를 1900년 목사로 안수하고, 1901년 동양선교를 위해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카우만 부부 파송 이후 만국성결교회는 한국성결교회에 20세기 초반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특히, 카우만과 길보른의 동양선교를 위해 영미 성결교회들은 성결 기도 부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한국성결교회는 동양선교회를 통하여 미국 영국의 만국성결교회 후원을 받아들였고, 한국에서 크게 부흥 성장하였다. 그 한 예는 나사렛성결교회 창립에 기여한 정남수(1895-1965) 목사이다. 그는 한국성결교회 초대 감독 존 토마스의 도움으로 일본, 영국, 캐나다(1911-1913)에서 성결 부흥 운동을 접하고, 만국성결교회 지부인 캘리포니아성경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그 성경학교가 폐교되어 민국성결교회 본부인 신시내티 하나님의성서학원에 편입하여 졸업하게 된다(1915). 그는 다시 성결 부흥 운동의 본산인 미국 애즈베리대학에 편입해 만국성결교회 소속으로 성령신학과 부흥운동방법론을 배웠으며, 애즈베리대학을 졸업(1926)한 이후 한국성결교회 초대 전도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한국 전도 부흥운동을 위해 미국 만성 본부에 후원 요청을 하였고, 본부로부터 최신에 미국산 자동차를 후원받아 부흥전도단을 조직하여 전국을 돌며 천막(장막) 부흥회(집회)를 주도하였고, 그 결과 1930년대 한국성결교회 개척과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성결교회 전국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정남수 목사의 부흥의 불길은 성결교단의 토착 실세였던 이명직 목사에 의해 식어지게 되었고, 정남수 목사는 미국 나사렛성결교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부흥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혹자는 당시 성결교회 신앙잡지 정남수의 성화(거룩한 불)는 성결교회 교단 기관지 이명직의 '활천'(흐르는 샘물)과 더불어 전국에 보급되었으나, 결국 정치적으로 물이 불을 소멸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1935년 성결교회 총회에서 그의 동향 평양 출신 제자 신진 목사 변남성을 총회장에 당선시키고, 5년간 실세였던 이명직 총회장에 반기를 들고 이명직의 재정적 비리를 동아일보에 게재하며 파헤쳤다. 그러나 교단 실세인 이명직 목사에 의해 변남성 총회장 당선 무효로 인해 실각한 정남수 목사는 재정확보를 위해 미 인디애나 주 하나님의 교회(성결파)와 연결해 한국성결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립하여 교단으로 만들었으나, 그 교단에서 재정적 지원이 불가하여, 다시 미국 나사렛 성결교회 선교부(애즈베리대학 동문 존스)와 연결, 한국성결교회 11교회와 함께 일본 서부 지방회 명의로 한국 나사렛교회를 창립하였다. 교단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정남수 목사는 한국성결교회의 전국적인 성결 기도 부흥 운동의 모범적인 사례이고, 이 운동을 통하여 한국성결교회가 부흥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한국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빈민구제와 세계선교에 있다.**

마틴 냅은 예배와 교육 그리고 빈민구제와 선교를 위한 기관으로 Mission Hall을 창안하여, 성결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설립하면 그 이름을 Mission Hall이라 명명하였다. 왜 그러했을까? 그것은 성결교회는 교회를 넘어 현장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주무관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 이 명칭은 20세기 초 서구에서 관청이나 시청을 City Hall로 표현한 것으로, City Hall은 그 지역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성결교회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보다는 ‘선교’의 중심이고자 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결교회의 특징이요 정체성인 것이다.

한국성결교회 최초 교회 당시 복음전도관(The Gospel Mission Hall)은 성결교회의 지역 교회 공식 명칭인 Mission Hall의 한 곳이었다. Mission Hall이라고 성결교회 지역교회를 칭한 것은 성결교회는 본래 초대 교회 성경적인 사도적 성령 오순절운동을 회복하는 특징을 가진 교회로서, 빈민구호와 선교를 하는 중심 기관이라는 뜻이다.

사실, 복음전도관(The Gospel Mission Hall)은 카우만이 극동 선교사로 파송될 때, 안수 위원이었고 최초의 한국성결교회 설립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였던 퍼거슨 목사의 교회 명칭인 The Gospel Mission Hall을 따른 것이었다. 20세기 초 서구에서 시청을 City Hall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복음선교청’이라고 번역해야 했다. 복음전도관이라는 번역은 당시 일본식의 번역으로, 60년대 박태선 전도관 이미지와 혼합되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성결교회의 빈민구제 전통을 이어가는 한국성결교회는 미국 월드 비전과 협력하여 교회 개척과 부흥운동에 매진해 나갔다. 미국 월드비전 창립자 밥 피어스는 한국성결교회 창립자인 셋 리스 총회장의 교회에 출석하던 소년으로서 셋 리스 목사의 아들 폴 리스의 친구였다. 그는 셋 리스 총회장의 한국 선교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고, 한국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성결교회에서 선교활동(통역 최석모 목사)을 했으며, 한국 전쟁 시 종군기자로 재방문하여 한국의 고아들의 참상을 미국 전역에 보도하여 모금 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월드비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월드비전은 한국 전쟁 이후 밀가루를 서울에서 목포까지 성결교회를 통하여 서해안선을 따라 공급하였고, 한국성결교회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다섯째, 한국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성경학교 설립과 여성 지도력 존중에 있다.**

19세기 말 감리교를 비롯한 주류 교회들이 신학대학원 중심의 신학 교육으로 영성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상실해 가는 때에, 마틴 뱀은 성경적인 지도자 훈련 원칙을 고수하며, 신시대 내티에 하나님의 성서 학원을 설립하고, 학력 중심이 아니라 ‘soul-winning’ 영혼구령의 영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그는 학력은 중졸이지만 영혼구령의 열정과 경험이 풍부한 카우만을 높이 평가하여 성경학교 졸업반에 편입시키고, 한 학기 이수 후 바로 졸업시켜 목사안수를 주어 그 다음 해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카우만은 자신에게 학위와 어느 학교 출신이냐는 질문에 “내 학위는 시카고 전신국 선교대학이고, 내 학력 인가는 고린도후서 6장 4-10절”이라고 말하곤 했다. 마틴 뱀과 한국성결교회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 여성 목사 안수를 실시하였는데, 그 첫 예가 한국성결교회 창립에 기여한 카우만 여사였다.

성결대는 세계선교의 요람으로 신학, 예술, 인문, 사범, 사회과학, 공과대학, 융복합대학 등 7개 대학과 신학, 경영행정, 교육, 사회복지, 파이데이아, 일반 대학원 등 6개 대학원 7,000여명의 재학생과 200여명의 교직원이 재직하는 종합대학으로서 세계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신대와 나사렛 대학교도 전 세계 성결 전통의 우수한 학교들과 협력하여 세계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한국성결교회 산하 대학들의 특징은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 목사와 여성 지도자들의 배출로 인하여 성결교회의 신앙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성결교회의 특징과 정체성은 21세기 영혼구령의 선교 사역과 교회 성장이 정

체를 넘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결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결인들이여! 우리 모두 초기 성결교회 설립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아 한국성결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기도하고 연합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바이다.

그러면 **이상의 한국성결교회 특징과 정체성을 기초로 한국성결교회의 세계화 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첫째, 한국성결교회의 세계화는 결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야 한다.**

성결의 세계화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이다. 성결 운동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운동으로 변질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다. 성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은 은혜에서 시작되며, 성령의 불세례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성결의 체험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다. 본인도 성결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교회가 개척 교회부터 지금까지 고난과 힘든 과정에서도 늘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

**둘째, 한국성결교회의 세계화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일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성결의 세계화의 걸림돌은 웨슬리 시대부터 당면한 문제로서 도덕적 완전주의였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가?' 라고 칼빈주의자들은 늘 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에게 웨슬리 성결 운동은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곧 인간의 도덕적 율법주의로 비쳐졌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오해이다. 지금도 장로교에서 성결교회의 성결을 도덕적 완전주의로 잘못 보고 있다. 우리 성결 운동은 도덕적 완전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성결 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 중심 성경적 완전주의인 것이다. 인간의 실수가 용납되고 은혜롭게 받아주는 성경적 완전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결 운동의 지도자는 도덕 교사나 윤리 선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성결 운동에서 도덕과 윤리는 매우 중요한 실천 덕목이다. 그러나 성결 운동은 인간 내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지, 인간의 사회 규범이나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각 사회와 문화마다 사회 통합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도덕과 윤리이다. 그런데, 한 사회로부터 규범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 못하여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들은 사회와 문화로부터 소외된 변두리 사람들로서 진정 기독교의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불렀고, 이들이 곧 예수님의 사람들이자 성결의 사람들이다. 성결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힘없는 사회 약자가 많다. 세상은 이들을 비도덕적이고 무례한 사람들로 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비록 없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요 깨끗한 성결인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한국성결교회의 세계화는 사회적 약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 문화의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사회문화적 의인”들을 위해 오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유대 문화의 변두리 나사렛에 오셔서 변방 갈릴리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땅의

사람들”(암하레츠)과 함께 하셨다.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 염곡 무교동 가난한 사람들에서부터인 것을 기억하자. 성결교회는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지저분한 지역에서 못배운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성결교회 성결 운동은 이 전통을 잘 살려 나아가 지금도 소외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결코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넷째, 한국성결교회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바리새주의요 율법주의를 버려야 한다.**

성결 운동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사와 목사로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한다.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도적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면, 듣는 성도들은 그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다. 성결운동의 지도자의 죄에 대한 판단과 성결의 요구는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성경적인 이상론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르침과 메시지가 “현실과 무관하여 실천 불가능한 윤리적 이상론”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성결 운동 지도자의 설교가 사람들의 양심에 결코 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영 동떨어진 회개의 촉구는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가르침의 온상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심각한 경고는 인간의 삶의 정황을 무시하는 바리새 율법주의였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지적인 손을 닦고 식사를 하고 안 하고라는 정결법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었다(막 7:1-23).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다(롬 14:17). 성결 운동을 율법주의 도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 회복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성결교회의 세계화는 기쁘고 즐거운 풍요로운 운동이 되었으면 한다.**

성결 운동이 재미없고 삶을 구속하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한다. 이 운동이 일반적으로 높은 도덕성만을 요구하면 성도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에 힘을 더욱 실어주게 된다. 어느 대학의 총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대학은 술, 담배, 마약이 없는 무균질의 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 어느 기독교 계통의 대학에서는 소변검사를 통해 나타난 니코틴 수치를 입학전형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람들은 성결 운동이 철저한 도덕주의로 비쳐지고 그것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다. 사람들은 무균질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지만,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무균질은 중환자실이나 혹은 혈액암 환자의 병동만이 무균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로 성결 운동은 재미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중환자들만 가는 무균질의 깨끗한 병동”같은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No”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결한 삶은 고립적이고 도덕적이며 바리새적인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건강한 길로 인도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인 것이다.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성결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여섯째, 한국성결교회의 세계화는 고독한 완벽주의에서 공동체적 성결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결 운동은 중세 수도원식 고행이나 금욕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요즘 영성 회복 운동을 벌이는 집단에서 중세 카톨릭 영성을 추구하며, 거룩한 독서나 명상 기도 운동을 하는데 이는 진정한 성결 운동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

성결 운동은 고독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함께하는 완전을 추구해야 한다. 원래 우리 인간은 홀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주의를 극복하면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성결 운동이 개인의 성결로만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이 운동이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초대 성결교회의 전통대로 전 교회가 연합하여 부흥집회, 학생집회, 청년집회, 남전도, 여전도, 장로회 집회 등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성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사는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잘못 하지만 주님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잘한다. 서로 도와 완전한 공동체 교회가 된다. 교회 생활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자.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자. 성결 운동 사역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동역자나 사람들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성결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